정수복의 '응답하는 사회학'

'헬 조선'과 '파라다이스 코리아'

시대에 따라 감수성도 변한다. 1990년대 초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를 부르며 텔레비전의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무렵부터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른 감수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세대라는 말이 생겼다. 그 이후 젊은이들은 X세대에서 N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호명되었다. 2002년 서울 월드컵대회 당시 젊은이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러나 요즈음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곱씹고 있다. '지옥 같은 한국 사회'라는 뜻을 담은 헬조선의 '헬'이라는 발음 자체가 야유와 조롱의 감정을 표출하는 듯하다. 그런데 왜 헬코리아가 아니고 헬조선인가? 코리아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이라면 조선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과거를 연상시킨다.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찾기 힘든 일자리,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 그래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한 젊은이들이 내뱉는 고통의 소리, 그것이 헬조선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사람들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너도나도 열심히 뛰었다. 수출이 늘어나고 한국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각자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었다. 도표의 화살표는 항상 상승할 것으로 생각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화살표가 갑자기 하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된다!'라는 의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젊은이들은 토익 점수를 비롯한 스펙을 쌓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다. 그런 세월 이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3포 세대에서 시작해 5포 세대와 7포 세대를 거쳐 n포 세대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이제 젊은이들은 직장,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인간 관계, 꿈과 희망 등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포기하는 세대로 호칭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떠나 동남아시아나 유럽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국은 아직도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완만하지만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삼성·엘지·현대 같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외국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한국과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국 사회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객관적인 수치와 주관적인 체험 사이의 간격이다. 열심히 뛰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깨지고 난 다음의 환멸감, 그것이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의 심리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다. 기대가 큰 만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한 만큼, 환멸감과 분노는 커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이 축소되고 악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헬조선을 감수하라는 말인가? 물론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기성세대의 그 흔한 말 "노력을 더 하라는 말인가?" 이제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어떤 젊은이가 나에게 응답을 요구한다면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자기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삶의 주체가 되자.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탓한다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둘째로 다수를 따르는 모방의 삶을 살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창조적 소수'의 삶을 모색하자. 세상이 정해 놓은 가치 기준과 행복의 조건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재단하지 말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자.

셋째로 함께 그런 길을 걸을 친구와 연인을 만나자. 세상의 주류를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지옥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파라다이스 코리아'는 없다. 현실에는 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다. 그 고통을 극복하면서 삶의 주체가 되어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 사이의 '희망의 연대'가 이루어질 때라야, 정책도 바뀌고 사회구조도 변하면서 세상은 좀 더 살 만한 곳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사회학자·작가〉

의료칼럼

우리 아이 치아 관찰하기

윤 숙 자
전남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교수

엄마들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만을 소망한다. 물론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욕심이 생기지만, 무엇보다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특히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 하여, 치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를 바라며, '당연히 우리 아이는 건강하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치아는 당연히 별 탈없이 나오겠지 하고 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치아 개수가 정상적인, 제때 제 위치에서 나오는지, 또 유치(젖니)가 정상적인 시기에 잘 빠지는지를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는 늘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치아가 정상적인 개수가 아닌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과잉치(정상보다 더 많은 경우), 결손치(선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매복치(치아가 뼛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잉치 또는 결손치, 매복치 등은 낭(물혹)이나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잉치는 특히 윗니 중앙 부위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아이가 6살이나 7살이 돼 위 유치를 뺄 시기가 되면 치과에서 과잉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과잉치는 대부분 매복돼 있는 경우가 많고, 간혹 어떤 과잉치는 치아가 나올 때 함께 나오기도 한다. 과잉치를 적절한 시기에 발견해 빼주는 것이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 과잉치에 의해 영구치가 이미 방향이 틀어져 있을 경우에는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결손치는 윗니 작은 치아 또는 영구치 작은 어금니에서 주로 발생한다. 젖니를 뺄 시기가 되면, 뼈 속에 영구치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앞으로 영구치가 나올지를 확인하기 위해 치과를 방문할 필요가 있다.

젖니를 뺐는데 영구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공간이 남게 되며 따라서 옆의 치아들이 쓰러지게 된다. 결국, 이것을 바르게 세우고 보철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렇게 영구치가 선천적으로 결손된 것이 확인되면, 가능한 젖니를 빼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첫 번째 어금니가 결손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존재하는 치아가 입안으로 나오지 않아서 결손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치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아를 꼽는다면 만 6살이 되면 입안으로 나오는 첫 번째 어금니라고 하는 것이 치과 의사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첫 번째 어금니가 방향이 잘못돼 옆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발육하면, 이 첫 번째 어금니는 젖니에 걸리게 되고, 젖니 뿌리를 녹이게 돼, 결과적으로 입안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 상태를 모르고 방치하면, 이 치아와 맞물리는 반대편 어금니는 본래 위치보다 더 위로 솟구치게 돼 결과적으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어금니 두 개가 한꺼번에 망가지게 된다.

늦지 않게 발견한다면 젖니, 첫 번째 어금니 모두 다 잘 살릴 수 있다. 따라서 6살이 돼 첫 번째 어금니가 나올 시기가 돼도 첫 번째 어금니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치아가 매복되면,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다른 치아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매복된 치아와 관련해 낭이나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낭이나 종양이 발생해 아래에 치아가 나오지 못하고 매복되는 경우도 있다. 치아가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치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낭이나 종양이 있다고 해도 딱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낭이나 양성종양이 뼈 밖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뼈 안쪽으로 성장해 실제로 병소는 크기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겉으론 아무런 증상이나 변화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의 치아가 제대로 나오는지 여부 등 치아와 관련한 검사 시기는 만 6세이다. 이 시기에는 이미 영구치아가 뼈 속에 형성돼 있고, 치아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금니가 입안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중요한 시기는 15세이다. 이 시기에는 사랑니가 대부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니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 고

야권의 호남발 혈전을 앞두고

김 정 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술렁거린다. 여당은 친박과 비박이 공천권에 대한 다툼을 시작한 지 오래며, 야당은 사상 유래 없는 분열이 예상된다. 여기에 아직 선거구 획정도 완결되지 못한 상태고, 이합집산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 야권으로 인해 섣부른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은 치열한 전투가 예견되면서 모처럼 선거다운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한껏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남지역의 선거는 민주당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해 왔기 때문에 공천은 곧 당선을 보장하였다. 최근 실시된 몇 차례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 왔고, 일부 무소속 후보나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예는 있지만 큰 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민주당은 지난 몇 달 동안 당내의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호남에서의 지지세 및 소속 의원 수가 많이 줄어든 형국에서 다시 과거의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면서 현역의원들에게 맞불을 놓고 있다. 더욱이 영입된 신진인사들 대부분이 호남 출신이어서 현역 의원들이 이탈한 지역에 이들을 배치함으로써 정면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영입을 발표한 정당들은 영입 인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는지를 내세우기에 바쁘다. 사회변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들을 해왔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입경쟁이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훌륭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정치의 장에서 과거의 명망가는 지금도 충분하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 보인다.

이런 영입인사들이 갑자기 호남이 고향이라면서 찾아가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다. 그동안 호남이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을 때, 호남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고향 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이 고향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고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판 갈이'의 대상이라고 외칠 기세다.

요즘 흔한 SNS에서 마저도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 한번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쏟아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호남에서 출마해 호남의 정치지형을 바꿔야 할 사람들은 이들 영입인사들이 아니다.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역에서 봉사해 왔던 지역 인사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순리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역정에 내세울 만한 화려한 경력은 없지만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 숙이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갖춘 그들이 그래도 지금의 시국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기회를 잡자마자 슬그머니 나타나 고향을 위해 봉사한다는 위선을 떠는 모양새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훌륭한 인재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세와 포부를 펼치면서 치열한 쟁투를 이어가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호남사람들의 아픔도 함께 느껴보고, 장래 호남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더 나아가서 호남에서만 머물지 말고 정치적인 웅비를 위해 재선, 삼선은 수도권에 진출하는 멋진 기상을 보여주기 바란다. 과거의 야권에서 보여주었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 뚜렷한 정치적 소신, 확고한 역사관을 가지고 불의에 과감히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호남사람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지리멸렬하게 당하고만 사는 야권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가슴으로 손길을 내미는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社 說

전일빌딩 활용 방안 정부 지원 없인 어렵다

5·18 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와 부침을 함께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의 활용 방안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 같다. 광주시는 최근 '전일빌딩 활용 방안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자문위원회'를 열어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최종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과제를 제시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자문위에는 조선대 이승권 교수, 호남대 송진희 교수, 전남대 천득염 교수, 그리고 문화재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제기한 활용 방안을 검토한 뒤 공통분모를 찾아 의견을 도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거론된 방안은 언론박물관, 아시아문화전당 창작지원센터, '아시아문화채널' 설립 등이다.

문제는 전일빌딩 활용 방안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그동안 수차례의 토론회 등을 통해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아시아 전역에 내보내는 '아시아문화 채널'로 활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문광부에 건의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일빌딩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40억 원의 보수 비용 이외에 최소 200억~300억 원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의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광주도시공사가 138억 원에 전일빌딩을 매입했지만 4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매년 2억4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한 이후 쇠락했던 광주 도심은 서서히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인근의 노후화된 전일빌딩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한 도심과 문화전당과의 연계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전당의 개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전일빌딩이 도심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전당 광주 건립 왜 안 된다는 건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당을 서울 한 곳에만 건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초 광주와 창원 그리고 서울에 짓기로 했던 약속을 파기한 것이어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을 놓고 민주주의를 기리는 일마저 수도권 중심 사고가 앞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광주를 비롯한 3곳에 전당을 분산 건립한다는 협약을 무효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보내 왔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2013년 11월 당시 광주·창원 유치추진위와 간담회를 갖고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를 비롯한 세 도시에 전당을 나눠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광주시는 기념사업회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대위를 꾸리는 등 대응에 들어갔다.

광주는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심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야 새삼 말할 것도 없고, 험난했던 군부정권 시절 민주화에 앞장섰던 도시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옛 마산과 통합된 창원 역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4·19 혁명을 태동시킨 바 있어 두 곳이 빠지면 전당의 취지가 크게 바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광주시는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한 옛 광주교도소 부지(10만8423㎡)에 전당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옛 광주교도소는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투옥됐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창원시 역시 예정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어 기념사업회의 독단적인 처사가 굳어진다면 두 도시의 행정력 낭비 또한 피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는 다음달 '민주주의 전당 광주 유치위' 회의를 열어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민주도시인 광주와 창원은 이번에 힘을 합해 당초 계획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5·18 광주의 '응답'

1982년 부산의 고신대 신학과 휴학생 문부식 씨와 재학생 김인숙 씨는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 출신 김현장 씨도 주범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이들은 1982년 3월18일 부산 미국문화원에 불을 질러 인명 피해를 낸 피고들이다.

당시 보수 신문은 '누구를 위한 방화인가 : 미 문화원 소실과 우리의 수치'라고 썼다. "광주 학살을 방조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그랬다"는 이들의 주장을 보도한 신문은 없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주 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파쇼정권을 타도하자"는 이들의 목소리도 묻혀 버렸다.

최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미문화원 방화사건 후 한·미 양국의 대응 조처와 피해 보상 문제를 담은 문서를 공개했다. 이 소식을 접하고 2002년 문부식 씨가 펴낸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광기의 시대를 생각함'을 다시 들춰 보았다. 그는 머리말에 "숱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간혹 꿈을 꾸다 길을 잘못 잡으면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가 있다"고 적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문 씨와 함께 광주의 아픔에 '응답'했던 김인숙 씨는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당시 5년 8개월 옥고를 치른 후 번역 일을 하다 위암으로 지난 2011년 숨을 거둔 것이다. 하지만 광주는 그의 고통에 적극 응답하지 못했다.

부산 출신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광주를, 광주항쟁을 숭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매번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의 삶은 그때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이 흘린 피 값으로 대신 사 준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철학의 헌정-5·18을 생각함'이란 책을 펴냈다. 광주항쟁을 현재의 아픔으로 되새기는 그는 "아직도 5·18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욕하고 다시 그 심장에 못을 박음으로써 진리를 매장하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대검으로 찌르고, 총알로 뚫어도 진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썼다.

광주에서는 늘 "광주항쟁을 전국에,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이젠 타지에서 광주의 아픔을 함께했던 사람들도 기억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 penfoot@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6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